

CCNU in treatment of canine cutaneous lymphoma in a dog

Seung-jun Lee, Dong-ha Bhang, Kyoung-won Seo, Cheol-Yong Hwang,
Hwa-young Youn*

*Departments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,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, Seoul
National University, Seoul, 151-742, Korea*

서론: 피부 림프종은 개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종양으로 일반적인 항암제의 반응이 약한 종양으로 알려져 있다. 최근 Rassnick 등에 의해 피부 림프종에서 CCNU 시도가 이루어졌고, 본 증례는 피부 림프종에 CCNU(lomustine)을 적용하여 치료한 예이다.

재료 및 방법: 10세령의 수컷 체중 11kg의 코커스파니엘 견이 네 발바닥 모두에 심한 소양감을 보이며 네 발바닥 모두 삼출물이 나오는 증상을 보이며 특히 뒷다리에는 미란과 궤양 및 피부가 벗겨지는 양상을 보이며 서울대학교부속동물병원에 내원하였다. 이에 본원에서는 기본 피부 검사(피부소파검사, 도말 염색검사)를 실시하였고, 진균 배양 및 미세침 흡인검사 및 좌측 후지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다. 또한 조직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T-cell 유래 림프종을 진단하였다.

결과: CCNU protocol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였고, 최초 90mg/m² PO로 1주차 투여를 시작하여 21주간 항암치료를 실시하였다. 최초 치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뒤 전신적인 활력저하 및 병변의 확산이 발견되었으며 호흡곤란이 나타나 보호자가 안락사조치 하였다.

임상적의의: 최근 mast cell tumor 및 중추 신경계 종양 및 림프종에서 rescue 항암제로 각광받고 있는 CCNU를 피부 임파종에서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예후가 불량한 피부 임파종에서 진단후 생존기간을 6개월 이상을 유지하였음에 의의가 있다.

* Corresponding author : hyyoun@snu.ac.kr